



사회적기업 커넥트, 중앙동에 김장김치 나눔

주식회사 커넥트(대표 박하승)는 9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김장김치 100포기를 중앙동 주민센터(동장 최훈석)에 기탁했다.

박하승 대표는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코로나9 상황으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으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커넥트는 2018년 4월 설립돼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전국의 기업들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미케팅을 대행해주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업체의 특성 방향 비전 등을 파악하고 블로그 포스팅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고명철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장, 석류장 수상

남원시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고명철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제12기부터 20기인 현재까지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현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험의회의 기능역할 재정립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명철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전반에 관한 관심과 견의는 물론, 지속적인 통일활동 및 미래통일 준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진안소방서, 리버스멘토링 시범운영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소방공무원 21명 중원으로 소방조직 내 급격하게 유입된 MZ세대로 인한 급변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리버스멘토링(Reverse Mentoring)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번 리버스 멘토링은 오정철 서장이 멘티(Mentee)가 되고 2021년 신규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을 포함한 MZ세대의 20~30대 소방관들이 멘토(Mentor)가 되어 소방서장이 젊은 감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민기자

‘에그투게더(Egg Together) 캠페인’

전북농협, 작지만 완전식품 계란'으로 사랑 나눠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9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길)와 함께 정읍 관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어린이집 등에 계란 30구 360판(10,800개)을 전달하는 ‘에그투게더(Egg Together)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에서 매달 실시하는 밀반찬 나눔봉사와 연계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밀반찬과 계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다가오는 겨울 추위로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작지만 완전식품인 계란을 전달함으로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며 “에그투게더 캠페인처럼 다양한 곳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사회공헌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그투게더(Egg Together)는 ‘계란을 함께 먹자. 계란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담은 전 국민이 함께하는 계란 기부운동이다.

/김윤상 기자

이윤정 임상심리전문가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전북대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전북해비라기아동센터 이윤정 임상심리전문가가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우리의 관심이 여성폭력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서 전북해비라기아동센터 이 전문가는 아동·여성 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및 치료, 부모 상담 및 교육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치료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퍼비전 등을 수행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꾸고 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윤상 기자



여의동 재능나라어린이집, 플리마켓 수익금 기부

전주시 여의동에 위치한 재능나라어린이집(원장 박귀영)이 지난 8일 주민센터를 찾아, 11월에 진행한 플리마켓의 수익금을 기부하며 연말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수익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코로나9 장기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기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여의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귀영 재능나라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에게 경제 관념과 더불어 나눔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한편, 전주대 StarT 프로그램은 2009년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획한 장학 연계 포인트제로,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이란 대학 이미지에 맞는 도전하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은성 기자



자치분권포럼 임지연 사무국장, 지역발전대상 수상

임지연(사)자치분권포럼 사무국장이 지난 8일 광주광역시 전일빌딩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지역발전정책연구원(원장 박대우)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제12회 한국지역발전대상은 지역 균형발전을 비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역·사회·단체·문화·언론·체육·봉사 등 8개 분야에서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업적을 남긴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 사무국장은 도내 결식이동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Safety-Net시스템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호상 기자

전주대, 학생 43명에 ‘2학기 수퍼스타’ 인증 수여

전주대학교가 9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1학년도 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은 전주대의 특화된 진로 프로그램 StarT(Star Training)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업적을 달성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와 인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다.

2021학년도 2학기에는 43명의 수퍼스타가 탄생했으며, 지난 4년간의 노력을 축하하고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인증서 증정과 기념품을 수여했다.

최고득점자 외희선(산업학과)과 이자산(생화학과) 학생(16학번)은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었고, 장학금은 물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홍순지 총장은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능동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성취를 이뤄낸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장애인 사회인식 변화 꾀한다… 장애인 인권세미나 개최

제21회 장애인 인권세미나 및 문화공연이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비él고교 바울센터 2층에서 열렸다.

전북장애인복지문화연구소 전주시지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언론보도, 실태, 사례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정책대안과 법률개정 등의 예방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및 개인의 변화를 꾀하기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로 진행됐으며, 이영재 전북장애인복지문화연구소 전주시지소장,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화연구소장, 황의우 전북장애인복지문화연구소 이사장 이남숙 전주의회 의원, 김현덕 전주시의회 의원, 임정엽 전 원주군수, 김연철 전북장애인복지문화연구소 부소장 등 임원 15명과 장애인 80여명이 참석했다.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화연구소장의 진행과 함께 먼저, 배형원 군산시의원이 ‘공정의사 결정구조와 당시자주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방희 전북도민일보 제2사회부장의

‘코로나19 상황과 장애인 인권’, 박선전 전주시의원의 ‘전주시 장애인정책과 인권’, 이해진 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의 ‘장애인의 성과 인권’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영재 지소장은 “이번 인권세미나를 통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밀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옥 소장은 “장애인 복지, 인권이 낙후된 지역사회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당사자들이 경쟁력을 기우고 지자체에서 과감한 예산을 반영해 장애인 복지, 인권향상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